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 호주, 특수임무용 페레그린 4대 배치

기 동 수단, BTR-70을 개량한 샤리프-3 APC 공개

함 정 미 해군, 무인잠수정 전력 구축 가속화

방호·유도무기 일본, 장거리 공대함 순항미사일 개발 예정

전재·인용 시 출처(국방기술품질원)를
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은 <Global Defense News>로
전 세계 국방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◎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◎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호주, 특수임무용 페레그린 4대 배치

○ 호주 공군이 특수임무용 MC-55A 페레그린(Peregrine)으로 알려진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 4대를 배치함.

- 3월 18일 크리스토퍼 파인 국방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산업부 장관이 페레그린 4대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
 - ↳ 4대 조달에 24억 6,000만 AUD(17억 5,000만 달러)가 투입되며, 25년간 유지비 20억 AUD
- 페레그린은 새로운 공중전자전 능력을 구비해 국방부의 합동전투수행 네트워크에 통합될 예정
-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소재 호준 공군 에딘버러(Edinburgh)기지에 배치될 예정
 - 호주 공군은 세계 최초의 5세대 공군 구축이라는 원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조달을 추진함

○ 해군·공군·지상군이 복잡한 전자기 환경에서 작전 수행 시 전자전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
- 미국 L3 커뮤니케이션 M사에서 기본형 G550 비즈니스 제트기를 MC-55A 페레그린 제트기로 개조
- G550 항공기는 항속거리 6,750nm(12,501km), 순항속도 459kt(850km/h)로 장거리 비행 가능
 - 호주가 ISR 및 EW 임무체계를 장착한 G550 항공기를 획득하게 되면 특히 장거리 분야에서 호주의 능력 강화가 기대 됨



특수임무용 MC-55A로 개조되는 기본형 G550 비즈니스 제트기

수단, BTR-70을 개량한 샤리프-3 APC 공개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
기 동
함 정
방호·유도무기

○ 수단의 MIC사가 러시아 BTR-70 8×8 장갑차를 개량한 샤리프(Shareef)-3 차륜형 병력수송장갑차(APC)를 출시함.

※ APC: Armoured Personnel Carrier

- 샤리프-3는 KAMAZ-7403 V8 수랭식 디젤엔진 탑재, 출력 260hp/2,600rpm, 최대 도로 속도 80km/h, 상륙 시 수상 속도 8~10km/h
- 전차장, 포수, 조종수 좌석과 병력탑승실 중간에 벤치형 좌석 2개를 추가해 6명 탑승 가능
- BTR-70과 동일하게 전륜 4개에 파워 스티어링 방식을 적용하고, CTIS(중앙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)를 장착

※ CTIS: Central Tyre Inflation System

- 73mm 2A28 주포와 7.62mm PKT 기관총으로 무장한 러시아제 BMP-1 보병전투장갑차(IFV) 포탑으로 대체
- └ 포수용 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포탑과 차체 사이에 간격을 띄우는 장치를 추가

※ IFV: Infantry Fighting Vehicle

- MIC사가 BTR-70 8×8 장갑차 또는 BMP-1 IFV를 제작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개조 사업은 내수 또는 해당 장갑차를 운용하는 해외 국가를 겨냥한 것일 수 있으며, BTR-70의 운용 및 지원 비용이 적기 때문에 BTR-70 플랫폼에 이러한 포탑을 설치하는 것이 화력 유지에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개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측됨



샤리프-3 8×8 APC

미 해군, 무인잠수정 전력 구축 가속화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
기 동
함 정
방호·유도무기

- 미 해군은 오르카 초대형급 무인잠수정(XLUUV) 및 대형급 무인잠수정(LDUUV) 등 2종의 대형 UUV 설계 및 개발을 위해 몇몇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.

※ XLUUV: Extra Large Unmanned Undersea Vehicle

※ LDUUV: Large Diameter Unmanned Undersea Vehicle

- 수상해군협회 컨퍼런스에서 해군 무인체계 사업관리자 페이트 스몰 대령은 이들 2종의 UUV를 설명하면서 "미 해군은 UUV와 USV를 도입하여 수상함 및 잠수함과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"고 발표
- 오르카 XLUUV와 아직 명명되지 않은 LDUUV는 수중 정찰, 잠수함 모함과 데이터 공유, 기뢰 탐색 및 파괴, 적 수상함 및 수중함 공격 등에 사용될 예정

- 2월 13일 보잉사는 미 해군용으로 오르카 XLUUV 4척을 제작하는 4,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함.

- 보잉사의 오르카 XLUUV는 에코 레인저(Echo Ranger) 수중드론에 기반을 두며, 에코 레인저는 길이 84ft, 중량 50톤, 잠항심도 11,000ft, 항속거리 6,500NM
- 장애물 회피 기능, 자율부력장치 및 합성개구음탐기 탑재
- 해군은 궁극적으로 기뢰대향책, 대잠전, 대함전, 전자전 및 타격 임무에 오르카 XLUUV를 사용할 계획이며, LDUUV는 완전자율모드로 공해상과 연안해역에서 70일 이상 장기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함



에코 보이저

일본, 장거리 공대함 순항미사일 개발 예정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
기 동
합 정
방호·유도무기

○ 일본이 남서쪽 섬지역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ASM-3 공중발사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할 예정임.

- 3월 19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처음 개발한 초음속 공중발사 대함미사일인 ASM-3의 사거리를 400km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며, “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남서쪽 1,200km 거리에 뻗어 있는 난세이(Nansei) 제도를 방어하고, 자위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”고 발표

○ ASM-3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-2 다목적 전투기에 탑재 예정임.

- ASM-3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방위성이 93식 미사일의 후속 체계로 공동 개발하였으며, 최고속도 마하 3, 최대사거리 200km로 추정

└ 또한 일본자위대는 콩스버그사의 정밀유도 합동타격미사일(JSM), 록히드마틴사의 AGM-158B JASSM-ER(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개량형), AGM-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(LRASM) 등 3종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

※ JSM: Joint Strike Missile ※LRASM: Long Range Anti-Ship Missile

- 다케시 방위상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, 분쟁지역인 오키나와현 관할 센카쿠(중국명 댜오위다오) 제도가 위치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

※ 국내 유사체계 업체정보: LIG넥스원



ASM-3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본의 F-2 전투기